

# GIST,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(KIER)과 함께 환경공학-에너지 분야 연구협력 나선다

<GIST 지구·환경공학부 - KIER 광주친환경에너지연구센터 MOU 체결>

- 에너지 분야 선도적 연구과제 발굴, 공동연구 추진, 전문인재 양성 및 교류 협력
- GIST 지구·환경공학부, 오는 9월 '환경·에너지공학부'로 학부명 변경... 차세대 환경융합기술 선도



▲ GIST 지구·환경공학부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광주친환경에너지연구센터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.

광주과학기술원(GIST, 총장 임기철)은 지구·환경공학부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광주친환경에너지연구센터가 에너지 분야의 공동연구 수행 및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.

협약식은 GIST 지구·환경공학부 이윤호 학부장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우중제 광주친환경에너지연구센터장을 비롯한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GIST에서 열렸다.

협약의 주요 내용은 ▲에너지 분야 등 상호 관심분야 공동연구 추진 ▲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인재 양성 및 교류 협력 ▲협동 연구를 위한 선도적 연구과제 발굴 등이다.

이윤호 학부장은 "이번 협약은 우리 학부의 환경공학 분야 연구역량을 에너지 분야에 접목하여 차세대 환경융합기술 구축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"면서, "GIST 지구·환경공학부는 오는 9월부터 환경·에너지공학부로 학부 명칭을 변경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환경융합기술을 개발하고 기후위기, 탄소중립, 에너지 저장 및 변환, 인공지능 활용 등 연구 분야를 더욱 넓힐 예정"이라고 밝혔다.

우중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광주친환경에너지연구센터장은 “우리 센터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패러다임으로의 전환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**친환경 에너지 저장 기술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**”며 “GIST와의 협약을 통해 에너지 분야 연구역량 강화는 물론 **우수 인재를 양성하는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**”라고 밝혔다.